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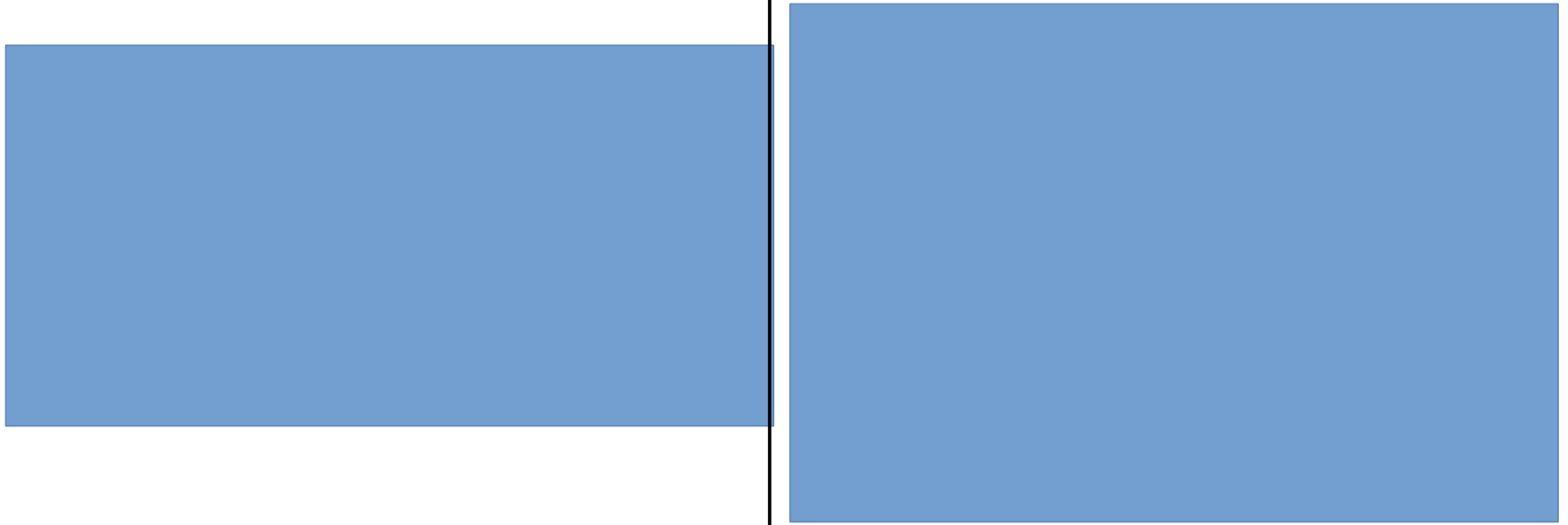
- 1 먼저문제지에 성명과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 답안지에 수험 번호 ,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 에 따라 표기하시오 .
- 문항에 대한 답이나, 각 문항에 대한 답을 표시하시오 . 1 점과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

1 번부터 6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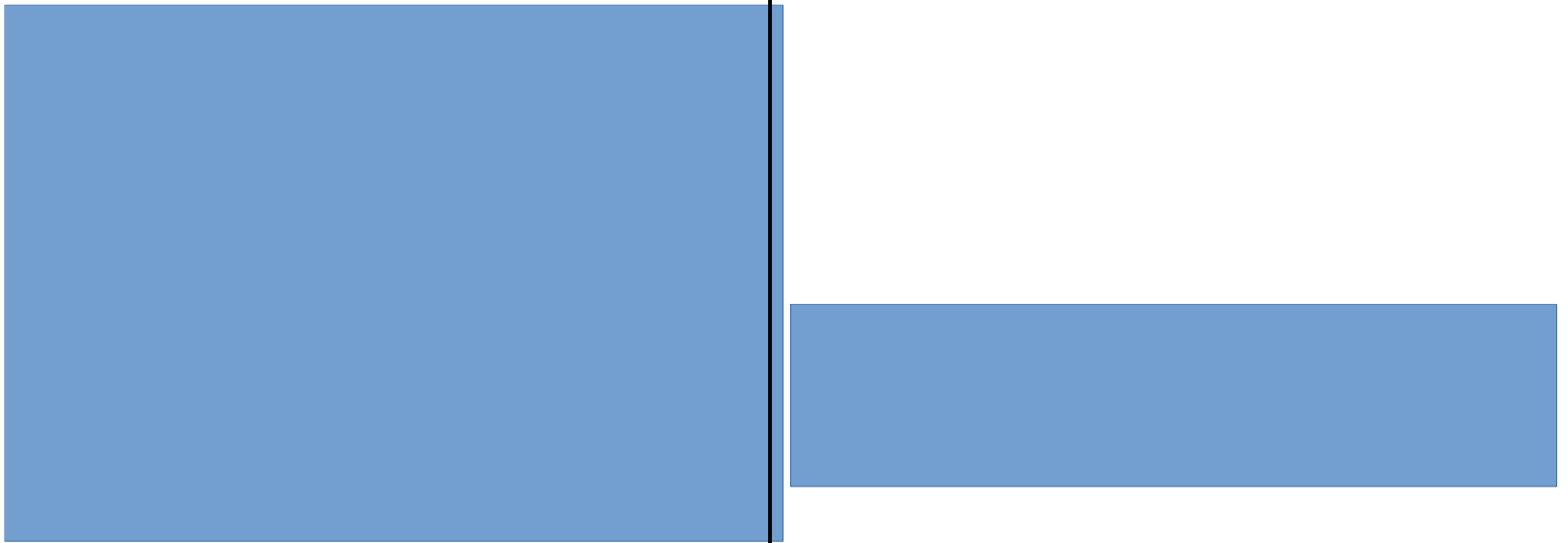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영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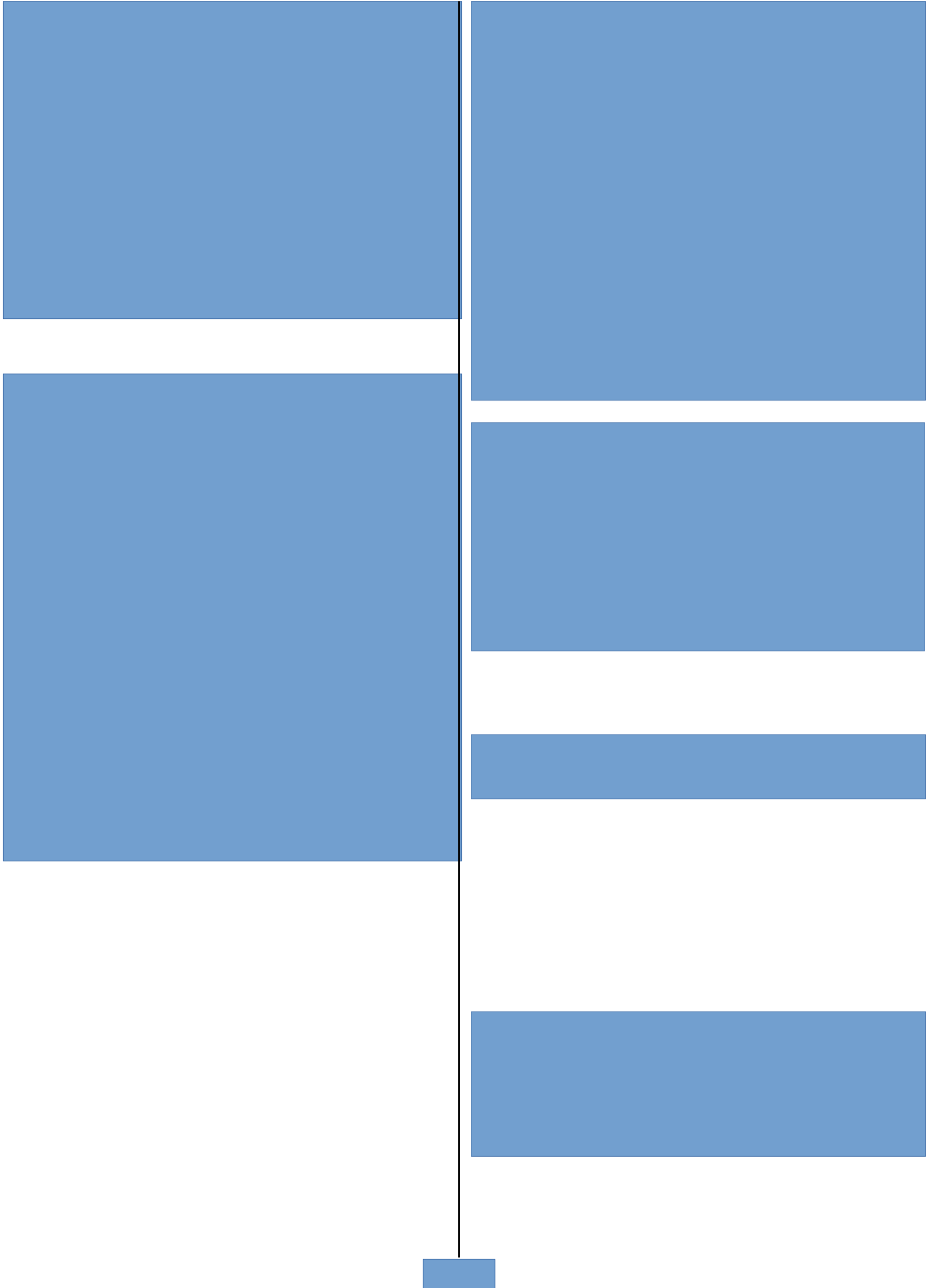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 영역

3



같은 것은?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리운 소식이기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처마끝에 호롱불 야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 -

(나)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콩기름 불
 실고추처럼 가늘게 피어나던 밤
 파문은 불씨를 헤쳐
 앞담배를 피우며
 "고놈, 눈동자가 초롱 같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
 바깥엔 연방 눈이 내리고
 오늘밤처럼 눈이 내리고.
 다만 이제 나 홀로
 눈을 밝으며 간다.
 오우버 자락에
 구수한 할머니의 옛 얘기를 싸고,
 어린 시절의 그 눈을 밝으며 간다.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어느 집 질화로엔
 밤알이 토실토실 익겠다.

- 김용호, 눈 오는 밤에 -

(다)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겨울 강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내 몸이 으스스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쓰러지면 일어서는 갈대가 되어
 청산이 소리치면 소리쳐 울리

- 정호승, 겨울 강에서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언어 영역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진로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 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샘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깔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 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 여덟 병의 진로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떼러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흑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휘방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흑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 ㉠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런가, 흑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이 휘둥그레져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뻥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흑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기계 바로 진짜 교육이야."

흑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굽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 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고 투시해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든,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 최명희, 혼불 -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3 빌딩과 같은 빌딩은 어떻게 강풍이나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풀어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주요 세 가지 개념이 곧 압축력(??), 인장력(??), 벤딩모멘트(bending moment)이다. 압축력은 부재(??)*에 길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고, 인장력은 재료를 잡아당기는 힘이며, 벤딩모멘트는 부재를 휘려고 하는 힘이다. 사람이 서 있게 되면 무릎 관절은 압축력을 받게 되고,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팔꿈치 관절은 인장력을 받게 된다. 다이빙 선수가 보드의 끝에 서게 되면 보드는 휘게 되는데 바로 벤딩모멘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압축력은 건물의 위층, 또는 지붕의 하중(??)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하중(??)이 커질수록 기둥의 굵기 역시 커져야 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30 층의 건물이라면 30 층에 있는 기둥보다 1 층에 있는 기둥이 더 굵어야 한다. 주어진 기둥의 크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하중이 실리면 당연히 건물이 무너진다. 즉 기둥에 주어지는 압축력이 기둥이 감당할 수 있는 ①한계치를 넘어서면 기둥이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압축력을 받는 부재들은 길이가 길어지면 파괴 강도가 요구하는 것보다 굵은 재료가 사용된다. 그 결과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은 많아지고 건물은 더 무겁고 둔하게 보이는 것이다.

건물의 압축력을 완화시키는 데 응용되는 힘이 인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자는 휘게 되겠지만 자를 양끝으로 세계 잡아당겼을 경우에는 자는 멀쩡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장력에 의해 버클링(힘에 의해 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장력을 받는 부재들은 꼭 필요한 강도만큼의 굵기만 사용하면 된다. 아무리 부재의 길이가 길어도 관계가 없다. 줄과 같이 압축에 저항력을 갖지 못한 부재들은 압축력에는 전혀 저항할 수 없지만 인장력에는 꽤 쓸모 있게 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 상판을 긴 줄로 이어 당겨주는 사장교나

현수교 같은 교량은 줄의 인장력으로 다리 상판의 압축력을 완화시킨 경우이다.

벤딩모멘트는 부재를 휘려고 하는 힘인데, 플라스틱 자를 한 손에 잡고 옆으로 당겼을 경우 자가 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낚싯대에 고기가 걸리면 낚싯대가 휘게 될 경우 낚싯대가 지탱해야 하는 힘을 벤딩모멘트라고 한다. 이러한 벤딩모멘트의 특징은 부재의 길이와 지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다이빙보드의 끝에 선수가 섰을 때 길이가 긴 보드는 짧은 것보다 더 많이 휘다. 또한 같은 길이의 부재라도 지지점에 가까울수록 벤딩모멘트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낚싯대의 벤딩모멘트는 낚시꾼이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이 굵게 제작되는 것이다. ㉠바람이 세게 불 경우를 대비하여 빌딩이나 건축물도 이런 원리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이상의 세 가지 힘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가 달라지고 건축에 소요되는 재료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63 빌딩의 날렵한 모습은 바로 이런 힘이 역학적으로 조화되어 건축되었기에 세찬 바람에도 의연히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다.

*부재(??) : 철재□목재 등 구조물에 쓰이는 재료.



우주와 사회와 인간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념, 이른바 우주관(???)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전인적(???) 이상과 진리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도자에게 극기(???)와 고행(???)이 요구된다. 또한 고행은 그의 실천 자체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전인적 목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구도자의 주된 관심은 전인적 이상과 진리의 실천이며 세속적 일들과 사회적 사건은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

끝으로 ⊖개벽형(???)은 이상 세계의 도래를 기대하며 그 때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 세계가 오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문제들과 개인 생존의 어려움이 모두 일거에 해결된다고 믿는다. 현재의 사회 조건과 이상적 황금 시대의 조건과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새시대의 도래는 극적이며 새시대의 개벽(???)은 더 장엄하고 그 충격은 더 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개벽 사상(???)은 사회의 본질적 변혁을 추구하는 개혁 의지와 이상 사회에 대한 집단적 꿈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개벽 사상에서는 주술적 생존 동기나 구도적 고행주의는 한낱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덕목으로 여겨질 뿐이다. 개벽 사상은 한마디로 난세의 철학이며 난세를 준비하는 혁명 사상인 것이다.

한 종교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세 유형의 신념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특별히 강조되거나 둘 또는 세 개의 유형이 동시에 강조되어 그 사상의 지배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복(???), 구도(???), 개벽(???)의 삼대 동기는 사실 인간의 종교적 염원의 삼대 범주를 이루고 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삼대 동기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조화된 종교 사상을 이루게 된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 종교사에 나타나는 종교적 신념 체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리는 시대 정신과 신념 체계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힐 수 있다. 그러면 이 유형들의 주된 관심사와 논리적 태도를 살펴보자.

먼저 ⊕기복형(???)은 그 관심이 질병이나 재앙과 같은 현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사유 체계에서는 삶의 이상이 바로 현세적 조건에 놓여진다. 현세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삶은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 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복 행위는 비록 내세의 일을 빈다 할지라도 내세의 이상적 조건을 현세의 조건에서 유추한다. 이와 같은 기복사상은 현세적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여기기 때문에 철저히 현실 조건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주술적 기복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기적(???) 성격을 지니며 행위자의 내면적 덕성의 함양은 그 관심 밖에 머무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도형(???)은 인간 존재의 실존적 제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론적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사상 체계에서는 현실적 조건과 이상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세적 조건들을 재해석한다. 그 결과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p)??? 일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ㄷ? i ?? 늙은 할아버지 홀로 갈고 땀는데
???????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이제현, 사리화(???)-

(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빨이 굵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을 뜯어 먹으며 개울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일하던 벗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시고. <2 장>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는 피는 모가 곱구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구나.
아마도 하느님 너희 만들 때에 나를 위해 만드셨네. <7 장>

- 위백규, 농가(???) -

(다)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의 자루가 돌아 서쪽 하늘을 가리키니
아침 저녁이 선선하여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리는구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이 익기를 재촉하니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어**는구나.
백곡에 이삭 펴고 곡식알이 들어 고개 숙여
누런 구름이 이는 듯하다.
백설 같은 면화송이 산호같은 고추 열매

[3 점]

치마에 널었으니 가을별이 명량하다.
안팎 마당 닦아 놓고 발채 망구 장만하소.
수수이삭 콩 가지요.
머루다래 산열매라.
뒷동산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알밤은 모아 말려서 필요한 때 쓰게 하소.
명주를 끊어 내어 가을별에 표백하고
남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로구나.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 수의를 미리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마르고 재어서 자녀의 혼수하세. (하략)

- 정학유, 농가월령가(???) -

힘들어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채봉은 평양성 김 진사의 딸로, 꽃구경을 갔다가 서생인 장필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된다. 필성의 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둘의 결혼을 승낙 받게 되는데 김 진사는 서울 사는 세도가 허 판서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며 그의 딸을 허 판서의 애첩으로 들여보내기로 약속하고 평양으로 내려온다.

"무엇이 그토록 좋아서 춤을 춘단 말입니까?"

"우선 허 판서 주선으로 과천 현감을 할 테지. 이제 채봉이가 그리로 들어가면 감(仁)도 있고, 대신도 있는 즉 그 때엔 정경부인은 갈 데 없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소. 두말 말고 데리고 올라 갑시다."

이씨 부인도 그 소리에는 귀가 솔깃하니,

"진사님께서도 기어코 하려고 드시면 전들 어떻게 하겠나이까만, 애기가 즐겨 들을지가 걱정이옵니다."

이 때 채봉이는 추향을 데리고 앉아서 열녀전을 보다가 부친의 음성을 듣자, 추향을 데리고 나오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자기의 혼사에 대한 말이라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역력히 들은 다음 이야기가 끝남을 기다려 아버지 앞에 나와 김 진사에게 날아갈 듯 절을 하더니

"아버님 먼 길에 안녕히 다녀오셨사오니까?"

김 진사는 채봉을 귀엽게 여겨서 채봉의 등을 어루만지며,

"오, 잘 있었느냐? 그레 글공부도 더 하고 바느질 솜씨도 더 익혔느냐?"

그러면서 이씨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여보, 참말 애기는 이제는 침선 같은 것은 배워도 소용이 없구료. 침모가 다 해다 바칠 테니 말이오."

김 진사는 다시 채봉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아가, 너 재상의 소실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아비 어미

부끄러워 말고 네 소원대로 말해 봐라."
 채봉은 배운 바 학문도 있고, 김 진사 내외의 하는 말도 들은 바 있는지라 서슴지 않고 대답하더라.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 되기는 원치않사오니이다."
 "허허, 네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면, 세상에 더한 호강은 없느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이씨 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렇던 저렇던 우선 방으로 드십시오. 마루에서 무슨 이야기를 길게 하십니까?"
 "들어갑시다. 아가 넌 네 방으로 가거라."
 하고 채봉을 초당으로 내보내고 두 내외는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느라 부산하더라.
 채봉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추향을 보고 말하기를,
 "추향아 이 일을 어찌면 좋으나?"
 "글쎄올습니다. 진사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실 것 같지 않은데, 마님께서 솔깃해하시니요."
 채봉은 묵묵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혼자 중얼거리더라.
 "박명한 채봉이 이제부터 무한한 풍상을 겪으리로다."
 하며, 두 줄기 눈물을 주루루 흘리니, 추향은 이 모양을 보고 채봉을 위로하더라.

"아가씨, 아가씨, 우지 마세요. 어찌됐건 간에 좋은 경사인데 왜 우시오니까?"

이 말을 들은 채봉은 소리쳐 꾸짖더라.

"발칙한 것, 네가 어찌 내 귀에 그런 말을 들린단 말이나? 이게 어찌 경사냐?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내 말을 들어 봐라. 옛 성현의 말씀이 '사람을 믿지 아니할진대 들이지 마라'하였으니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에 쓴단 말이나?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 누구에게든 한 번 허락한 다음에야 다시 판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이나? 너도 생각해 봐라. 전날 후원에서의 일은 내가 다 소개한 일인데 내가 어찌 판 마음을 먹는단 말이나?"

"아가씨의 뜻은 그러하오나 부모가 하시는 일을 자손된 도리에 어찌 거역을 한단 말씀이오니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정한 일이 있으면 비록 천자의 위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데 부모님께서 어찌 하신단 말이나?"

하고 추향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어라 한참 속삭이더니,
 "추향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어 떻게 하던지 가다가 중로(??)에서 몸을 피할 터이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추향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하시면 진사님과 마님께서서는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가씨 생각이 그러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성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점이란 본시 선을 이룬다기보다는 여기 저기 흩어져서 □여러 모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셋째, 우리 겨레가 아름다운 정서와 다른 시적 감흥을 지닌 것도 이런 점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산문이 선적인 것이라면 시는 언어의 절약으로 풍기는 운율과 함께 함축미를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형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인구어(? ㄴ?)와는 반대되는 특성이다. 이러한 문장의 어순 관계 유형은 문단이나 긴 글의 구조 유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 우리의 글에는 결론적인 서술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미괄식이 많다.

그에 비하여 서양 글에서는 두괄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요한 것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발전하여 가는 자연스런 접근 의식은 이런 표현과 연관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런 미괄적 언어 표현은 절정감을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주변적인 것을 서술하면서 점차 분위기를 고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수법은 절정감을 일으키는 데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거절이나 부정의 표현 등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표현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충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대화의 분위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의식을 낳게 한다. 중요한 내용이 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남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요지를 파악하게 만든다.

장의 형식을 갖추게 되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도 있다. 가령,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복남이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와 같이 주어 등을 다 갖추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게 들리겠는가? 이런 □생략 현상은 인구어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들 언어에서는 상황이야 어떻든 대부분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를 갖추어 주기 때문이다.

다 버리고 □징검다리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결을 보인다. 그 중 일부라도 잘라 버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통 □ 점과 점이 이어져서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운이 남고 농축이 서려서 오히려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또한 죽도록 피하는 것이 우리이다. 우리의 민족성으로 알려진 은근과 끈기라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의 논리와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점의 논리는 둥글고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감성적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체성이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의미 체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대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획득된다. 거기서 얻어지는 소속감은 개개인의 안정된 삶과 사회적 통합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 그런데 글로벌(Global)한 세계가 전개됨에 따라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나 집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람, 상품, 정보 등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일정한 사회적, 지리적 경계로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적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5천 년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이어왔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 분규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 7세기에 이미 현재의 지리적인 경계를 가진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고려 시대에는 중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했다. 특히 일제 시대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통감하면서 민족적 주체를 자각하였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저항적인 민족주의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성장을 체험하면서 국민적 정체성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등장은 세대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비슷한 정서를 손쉽게 공유하게 만들었고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에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발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했다.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문화적 표현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를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 여건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 부정합(???)속에서 과소비와 향락 문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서구적 근대화를 주창하던 1960년대에는 의식적인 척결 대상이었고, 1970년대에는 일부 대학생들의 문화 운동의 주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전통이요 민족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그것은 사회 운동의 주요한 정서로 자리잡았다. 마당놀이가 현대판으로 변안되어 흥행을 일으키고 민속 씨름이 프로 스포츠로 '재발견'되면서 뚜렷한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영화 <서편제>가 불러일으킨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라는 믿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출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애정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듯 민족과 국가를 근거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은 한국인의 집단 의식과 정서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그 동안 눈부신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효과적인 기제가 되었고 급속한 사회 변동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어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이 새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그 동안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의 내용을 따져보고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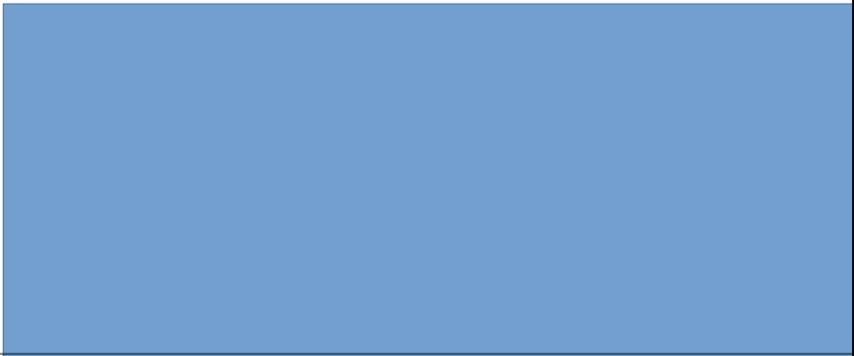


언어 영역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림 속에 깊이 숨어 사시는 데도 추천하였으니 남들이 몰라주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어진 임금께서 참다운 인재를 목마르게 구하시니 시대가 적당치 않다는



논리도 맞지 않을 듯합니다. 집사께서 문을 닫고 가만히 들어앉아서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닦고 뜻을 기르면, 얻는 것이 크고 쌓이는 것도 두터울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나와 이용한다면 어딜 가나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칠조개*처럼 벼슬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저는 집사의 행위에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사를 의심할 수야 있겠습니까? 집사의 처지에서도 반드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이 가난하고 또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보아 국록(국?)을 타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견식(8?)이 부족하여 그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였을 뿐이고, 몸은 늘 허망한 곳에 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추천서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며, 복잡한 현실에서 한가로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부끄러운 소행을 깨닫고 가던 길을 바꾸어 만년에 할 일을 찾으려 하나, 뜻과 생각이 모두 쇠퇴하고 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성인들의 경전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평소에 원하던 일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험에 힘입어 조금이나마 얻는 바가 있어 한평생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이황이 조식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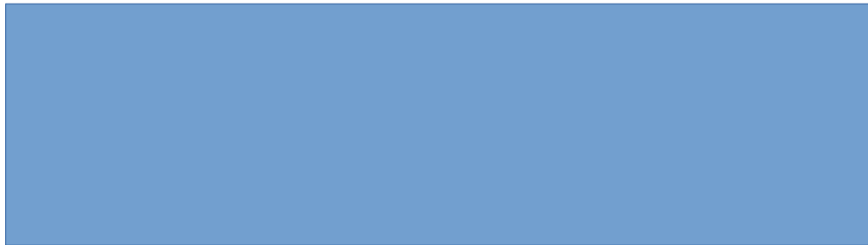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옛 사람들도 얻기 어려웠던 바요, 오늘날도 보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 앞에서 깊이 옷깃을 여미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대를 생각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옛 의리를 좇아갈 수 있는 까닭은, 저의 병이 깊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기에 핑계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대는 처신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대가 물으셨으니 제 생각을 대략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게 쓸렸습니다. 먼 길 떠나는 수레가 막 구르기 시작했고, 몸에 저와 같은 병도 없는데,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숨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뜻 그대를 놓아주겠습니까? 세상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세상을 버리려 한다면, 버리려 하면 할수록 더욱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병든 자처럼 자주 사직하기를 빌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책망도 병든 저에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제가 그대를 생각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벼슬길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학문에 뜻을 ㉠ 두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고, 도(道)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황이 기대승에게-



언어 영역

17

